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다음 달 재연 가능성
- ◇ (초점)-정부보증채 40 조·국채 10 조 물량 부담 커져..채권시장, 금리인하 모드
- ◇ (초점)-대출 수요 줄어도 불안감 커지는 외화자금시장..한은, 스왑 카드 꺼내나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수천 명이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의 비리 의혹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하면서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다. (로이터/코리아 컨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4월24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235.5	-1.4%	-6.4%	-3.5%	유로	1.0820	-0.5%	-3.5%	-2.3%
100엔 대비	1,144.4	-1.2%	-7.2%	-4.4%	엔	107.50	0.0%	1.0%	0.9%
유로 대비	1,331.4	-0.7%	-2.8%	-1.3%	위안	7.0672	0.2%	-1.5%	-1.3%
위안 대비	173.74	-1.1%	-4.6%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3,775.27	-1.9%	-16.7%	22.3%
코스피	1,889.01	-1.3%	-14.0%	7.7%	나스닥	8,634.52	-0.2%	-3.8%	35.2%
코스닥	632.96	-0.3%	-5.5%	-0.9%	S&P500	2,836.74	-1.3%	-12.2%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456.22	-2.6%	-17.5%	15.8%
국고채 3Y	1.018%	1.2bp	-34.2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277%	5.8bp	-20.3bp	-40.4bp	미국채 2Y	0.223%	2.1bp	-133.9bp	-93.7bp
국고채10Y	1.546%	10.8bp	-13.7bp	-26.5bp	미국채 10Y	0.606%	-3.6bp	-130.5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16.94	-7.3%	-72.3%	34.5%	한국 5Y	37.1bp	7.9bp	16.1bp	-17.0bp
금(현물)	1,727.43	2.6%	13.9%	18.3%	일본 5Y	38.0bp	0.0bp	20.3bp	-4.0bp
TR상품지수	2,106.39	-1.9%	-15.3%	4.8%	중국 5Y	48.6bp	7.0bp	18.0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4월 27일(월)>

- 기재부,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 기재부, 국채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PD)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09:00)

<28일(화)>

- 한은, 4월 소비자동향조사(06:00)
- 산업부,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 한은, 3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 한은, 4.9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

<29일(수)>

- 한은,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통계청, 3월 산업활동동향(08:00)
- 한은,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 KDI, 북한경제리뷰(12:00)
- 기재부, 5월 재정증권 발행(15:00)

<30일(목)>

- 공휴일

<5월 1일(금)>

- 산업부, 4월 수출입동향(09:00)
- 금융시장 휴장

해외 주요 주간 일정

<4월 27일(월)>

-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및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기자회견
- 중국, 3월 산업이익 (10:30)
- 미국, 4월 달러스런은 제조업지수 (23:30)

<28일(화)>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29일)
- 일본, 3월 실업률 (08:30)
- 미국, 3월 도매재고 및 소매재고 (21:30)
- 미국, 2월 케이스실러주택가격 (22:00)
- 미국, 4월 소비자신뢰지수 (23:00)

<29일(수)>

- 유로존, 3월 총유동성 증가율 및 가계대출 (18:00)
- 유로존, 4월 소비자신뢰지수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3월 잠정주택판매 (23:00)
- 일본 휴장

<30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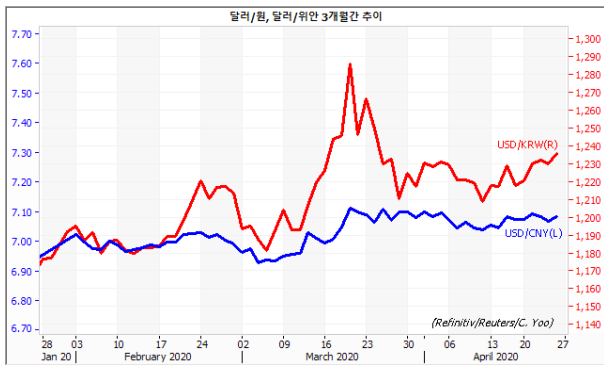
- 미국 FOMC 결과 발표 (03:00),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03:30)
- 일본, 3월 소매판매 (08:50)
- 중국, 4월 NBS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 (10:00)
- 유로존, 4월 소비자물가지수 (18:00)
- 유로존, 3월 실업률 (18:00)
- 유럽중앙은행 정책회의 결과 발표 (20:45) 및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기자회견(21:30)
- 미국, 3월 개인소득 및 1분기 고용비용 (21:30)
- 미국, 4월 시카고 PMI (22:45)

<5월 1일(금)>

- 일본, 도쿄 4월 소비자물가지수 (08:30)
- 일본, 4월 외환보유고 (08:50)
- 미국, 4월 마켓 제조업 PMI 확정치 (22:45)
- 미국, 3월 건설지출 (23:00)
- 미국, 4월 공급관리자협회(ISM) PMI (23:00)
-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홍콩 휴장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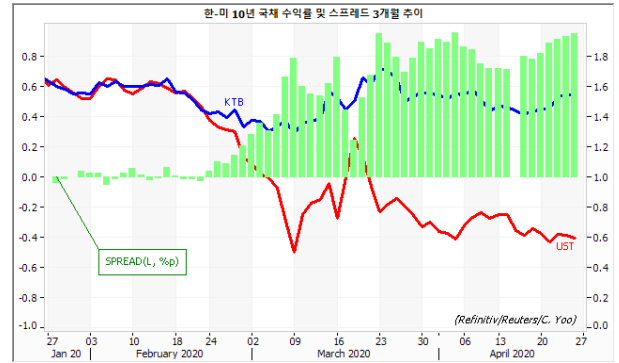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수준의 경제 지표 악화에도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국제유가와 북한 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려 속에 상승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 코로나 19 확산 억제 노력이 일단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적극적 검사, 확진자 및 의심 환자의 엄격한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 물리적 노력에 의한 것이며,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개발된 결과는 아니다.
- 그런 가운데 국제 원유 시장은 국제 금융시장의 새로운 대형 리스크로 떠올랐다. 여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 확대도 새로 제기되고 있다.
- 더구나 이번 주에는 거래일이 3일밖에 안 되는 만큼 시장참가자들은 하락 재료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주 시장에서 관심을 끌 만한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로는 28일 발표되는 4월 소비자심리지수, 29일 발표되는 3월 광공업생산 및 5월 기업 경기 전망지수(29일), 그리고 5월 1일 발표되는 4월 수출입 동향 등이 있다.
- 한편, 주요 해외 이벤트로는 30일 발표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기자회견이 있다. 같은 날 유럽중앙은행(ECB)도 정책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 해외 경제지표 가운데는 29일 발표되는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30일 발표되는 중국 PMI 및 유로존 실업률, 그리고 5월 1일 발표되는 미국 ISM 제조업지수 등이 있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주요국 통화정책 회의 등을 반영하며 등락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단기물금이 탄탄한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중장기물은 물량 증가 우려로 제한적인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전격 합의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29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 지급될 경우 추경안의 소요 재원은 기존 9조 7천억원에서 14조 3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는 추가 증액분 4조 6천억원 가운데 3조 6천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 1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3차 추경과 40조원 규모의 정부보증채권 등 발행이 예고돼 있는 만큼 채권시장의 강세 흐름을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정부는 29일 열리는 첫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의 추진 방향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선 결국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초점)-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다음달 재연 가능성

(로이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판데믹으로 연료 수요가 급감하고,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막대한 과잉 재고를 보관할 저장소까지 충분치 않자 원유 선물 보유분을 털어버리려는 절박한 트레이더들이 20일(현지시간) 투매에 나서면서 미국 원유 선물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21일 만기인 5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경질유(WTI)를 매도하면서 5월물은 한때 마이너스 40달러선까지 폭락한 뒤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로 306% 가량 하락한 채 마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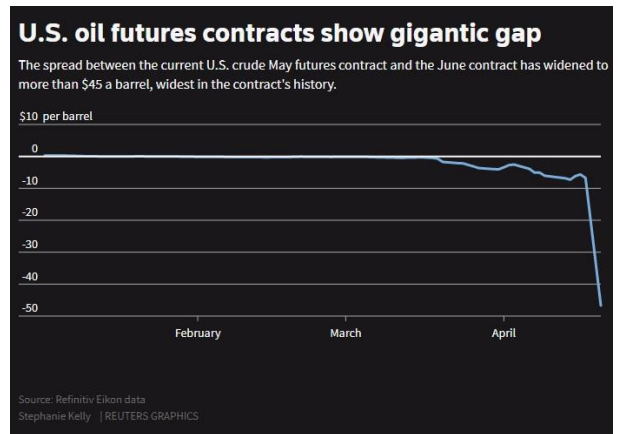
이날 급락세는 갑작스러웠지만 사실 몇 주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진 것이다. 코로나 19 판데믹으로 전 세계 연료 수요는 3월 초부터 약 30%가 급감했지만, 몇 주간 세계 원유 공급은 계속돼왔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기타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도 시장이 현재 필요로하지 않는 일일 수천만 배럴의 원유를 없애기에 충분히 빠르지 못했고, 규모도 충분치 않았다.

누구도 원치 않는 원유는 대신 저장소로 향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저장소가 채워지고 있다. 미국의 원유 저장 허브인 오클라호마주 쿠싱의 저장 시설은 지난주 현재 70%가 찬 상태이고, 트레이더들은 2주 안에 가득차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 21일 만기되는 WTI 5월물에 20일 매도세가 촉발됐다. WTI가 만기되면 보유자는 1계약당 1000 배럴을 가져가야 하는데, 인도지인 쿠싱의 저장소가 빠르게 채워지면서 트레이더들은 원치 않는 원유를 갖거나 포지션을 청산해야만하는 달갑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투매가 나타났다는 것은 매수자가 거의 없다는 의미로, 5월물이 지난 17일 정상가 18달러선에서 전례없는 마이너스권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시장의 전면적인 붕괴를 보았다. 매수자가 없는데 모두가 매도에 나섰다. 누군가 사길 원하는 수준까지 가격을 낮추어야하는데, 누구도 사려고 하질 않는다"고 말했다.

20일 장 초반 5월물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6월물과의 격차를 확대했다. 그러나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2시간 동안 매도세가 가속화됐고, 마감 직전 약 20분동안은 마침내 마이너스권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다.



(5월물과 6월물 스프레드,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달러가 깨지자 매도 주문이 몰려들었고, 한때 마이너스 40달러 아래로까지 하락한 뒤 37달러선에 마감됐다. 1983년 WTI가 처음 출범한 이후 최악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뉴욕 소재 미즈호의 밤 야거 에너지선물 이사는 "내가 걸프전도, 9·11도, 닷컴 위기도 겪었지만 지금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더 악화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 정도로 나쁘다"라고 말했다.

◆ 악화 가능성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식의 시장 혼란이 수개월 내에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연료 공급이 당분간 수요를 압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은 일일 약 1억배럴인데, 3월 초부터 소비가 세계적으로 30%, 일일 3000만배럴 가량 줄었다.

그러나 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은 4월 초나 되어서야 일일 970만배럴 감산에 합의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 감산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은 민간 기업들에게 감산을 지시하지 않았지만, 기업들이 빠르게 생산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코로나 19에서 회복해 다소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생산량이 줄어든 수요에 맞게 줄어들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이다.

미국의 저장소가 곧 가득 차게 되면 원유는 갈 곳이 없어진다.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쟈스케이프의 20일 보고서를 인용해 쿠싱의 원유 재고가 4월 17일까지 한주간 9%가 증가해 약 6100만배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쿠싱 저장소는 약 7600만배럴을 수용할 수 있다.

리포 오일 어소시에이츠의 앤디 리포는 "쿠싱은 앞으로 몇 달간 가득찬 상태가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생산이 빠르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 다음달 6월물에도 20일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6월물은 이날 20.43달러로 마감돼 5월물보다 58달러가 더 높게 거래됐다.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시장 애널리스트는 "불행하게도 다음달에도 아마 이런 혼란을 보게 될 것 같다. 엑손, 쉘브론 등 대형 석유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될 때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점)-정부보증채 40조-국채 10조 물량 부담 커져..채권시장, 금리인하 모드 이동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채권시장에 물량 폭탄이 떨어졌다. 정부가 4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을 국가보증 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0조원 가까이 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전격 발표한 영향이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고용 안정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다.

채권시장이 주목한 부분은 재원 조달 방안이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예보채상환기금(구 예금보험기금)이 채권을 발행해 부실채권 정리에 나선 것과 비견된다.

당시 2년 여 동안 예보채가 발행되며 시장금리를 큰 폭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 정부 보증 채권이라는 측면에서 공사채뿐 아니라 국고채 수요도 상당 부분 구축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다.

1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3차 추경은 6월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3차 추경의 경우 대부분 적자국채로 총당될 것이라 밝혔다.

A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기간산업안정채권이 정부 보증을 받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의 예보채 처럼 국채 수급을 구축할 것"이라며 "예보채 발행 당시에도 국채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시장 발행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소화가 안 되면 금융기관들을 통해 배정하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식으로 진행되든 시장의 수급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B 증권사 채권운용부장은 "기간산업안정채권은 국채와 공사채 중간 정도로 인식될 듯하다"며 "만기가 10년 이상으로 나올 경우 금리 매력도를 감안할 때 장기투자기관 수요가 상당 부분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채 수급의 경우 3차 추경이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며 "지금 돈이 들어갈 곳이 계속 늘고 있는데 하반기 세입 경정까지 감안하면 4차 추경도 염두에 뒀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권 수급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늘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로 채권 발행을 늘리는 국면에서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하로 지원하지 않겠느냐는 진단이다.

C 증권사 채권딜러는 "정부가 대규모로 재정을 풀면서 통화당국과의 정책 공조가 더 필요해진 상황"이라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 정부의 채권 발행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커진 만큼 단기물 채권으로
는 기대감이 생기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초점)-외화대출 수요 줄어도 불안감 커지는 외화자
금시장..한은, 스왑 카드 꺼내나**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
준비제도(연준)와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해 진행
하고 있는 외화대출 경쟁입찰 수요가 꾸준히 줄어
들고 있는데도 외화자금시장의 불안감이 쉽게 진정
되지 않고 있다.

최근 글로벌 달러 조달 사정이 개선되고 있는데도
국내 외화자금시장에선 달러 수급의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
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원화채 담보를 받고 달러 자금
을 대출해주는 현재 외화대출 방식의 전환도 고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은이
은행으로부터 직접 원화를 받고 달러를 주는 스왑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한은은 스왑 카드를 꺼내기에는 현재 외화자
금시장 상황의 시급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연방준비
제도와 협의 문제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며 신
중한 입장이다.

▲한은 외화대출 입찰 한도에 번번이 미달

한국은행이 지난 21일 실시한 4차 외화대출 경쟁
입찰에선 공급액 40억달러 중 21억 1900만달러가
낙찰됐다. 참여기관들이 공급 한도액의 절반 수준
에 응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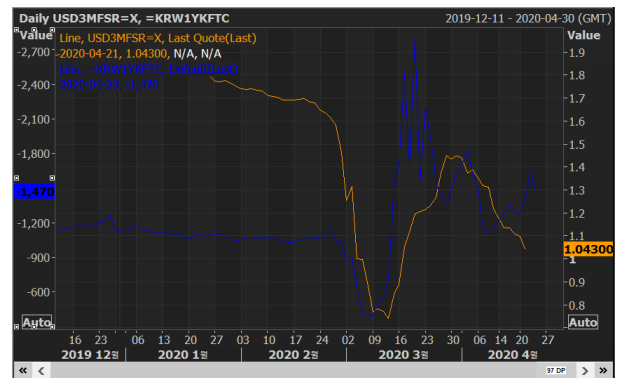
지난달 31일 실시했던 1차 외화대출 입찰에서도
한도액은 120억달러였지만 응찰액은 87억 2천만
달러에 그친 바 있다. 85억달러 한도로 진행한 2차
외화대출 입찰에는 44억 1500만달러어치가 낙찰
됐고, 지난주 3차 입찰에서도 공급액 40억달러 중
20억 2500만달러가 낙찰됐다.

4차례 외화대출 입찰 모두 금융기관의 달러 수요가
모집 한도에 크게 못 미친 것이다. 한은이 시장의 달
러 수요보다 다소 여유 있게 공급량을 정했다 해도
응찰액이 모집 한도에 크게 못 미친 것은 시중 달러

유동성 상황이 그만큼 개선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하지만 외화자금시장 사정을 보여주는 FX 스왑 포
인트, 단기 통화스왑(CRS) 금리 등의 움직임이 여
전히 심상치 않다. FX 스왑 시장과 CRS 시장의 변
동성이 줄어들지 않다 보니 외화자금시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딜러들이 적지 않다.

특히 글로벌 달러 자금 조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
는 3개월 리보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
에도 FX 스왑 포인트, CRS 시장은 롤러코스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하향 안정세 보이는 리보금리/들쭉날쭉 1년
FX 스왑 포인트,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참가자들은 기본적으로 국내 기관들의 해외자
산 투자가 크게 줄지 않고 있다는 점, 지난 3월 펼쳐
진 역대급 변동성 장세로 은행별 '발생가능 최대손
실금액(VaR)'이 급증하면서 운용 포지션에 한계가
나타난 점 등을 변동성 요인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
강 이상설은 외화자금시장의 잠재적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 시중은행 이자율 딜러는 "FX 스왑 6개월물과 1
년물 가격 차이가 심한 것은 그동안 1년 쪽으로 물
량이 많이 쌓였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북한 김 위
원장과 관련해 자고 일어났는데 뉴스가 하나 터져
있으면 대책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던지고 싶어 하
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외화대출 말고 스왑 형식 고려해야..'효과 있을까'
의구심도**

시장에서 연준 통화스왑 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부분이다. 은행의 달러 대출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데 외화자금시장이 확실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자금의 병목현상을 의심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은행들의 한은 외화대출 입찰 참여가 줄고 있는 이유와 관련해서 3개월 단기 자금 운용의 한계,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원화 담보의 헤어컷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외화대출 수요를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효과적으로 FX 스왑 시장 등에 자금이 풀리도록 하는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한은이 직접 대출 형태가 아니라 달러와 원화의 금리, 원금을 교환하는 형태로 달러를 푸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처럼 한은이 달러를 대출해주고 원화채를 담보로 받는 형태가 아니라 일정 금리 수준에 달러와 원화를 교환하는 것이다.

한은이 시장참가자의 비딩을 받아 달러를 풀면 FX 스왑 포인트의 하단을 지지하는 건 물론 시장 전반의 비드를 늘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일석이조라는 지적이다.

특히 원화채 담보 이슈가 해결된다는 측면 때문에 외국계 은행 쪽에서 관련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B 외은 지정 트레이딩헤드는 "지금 한은이 연준 자금을 소진해 시장에 달러를 풀고 있는데 FX 스왑 등 외화자금시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병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듯하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한은이 직접 비딩을 받아 FX 스왑 시장에 달러를 푸는 게 가격안정 차원에서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C 시중은행 자금팀장은 "한은이 FX 스왑으로 직접 자금을 풀면 당장 단기스왑포인트 역전폭이 축소되면서 장기 쪽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시중은행들 입장에서 단기 차입은 어디까지나 초단기 미스매칭을 메우는 목적이고 중요한 건 중장기 차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1년 이상 달러 만기 차입이 돼야 하는데 아직 그쪽 시장이 원활하지 않고 설령 한다고 해도 고금리로 빌려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한은의 외화대출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채권 발행이나 신디케이트 론이 될 때까지 버티는 게 우선일 듯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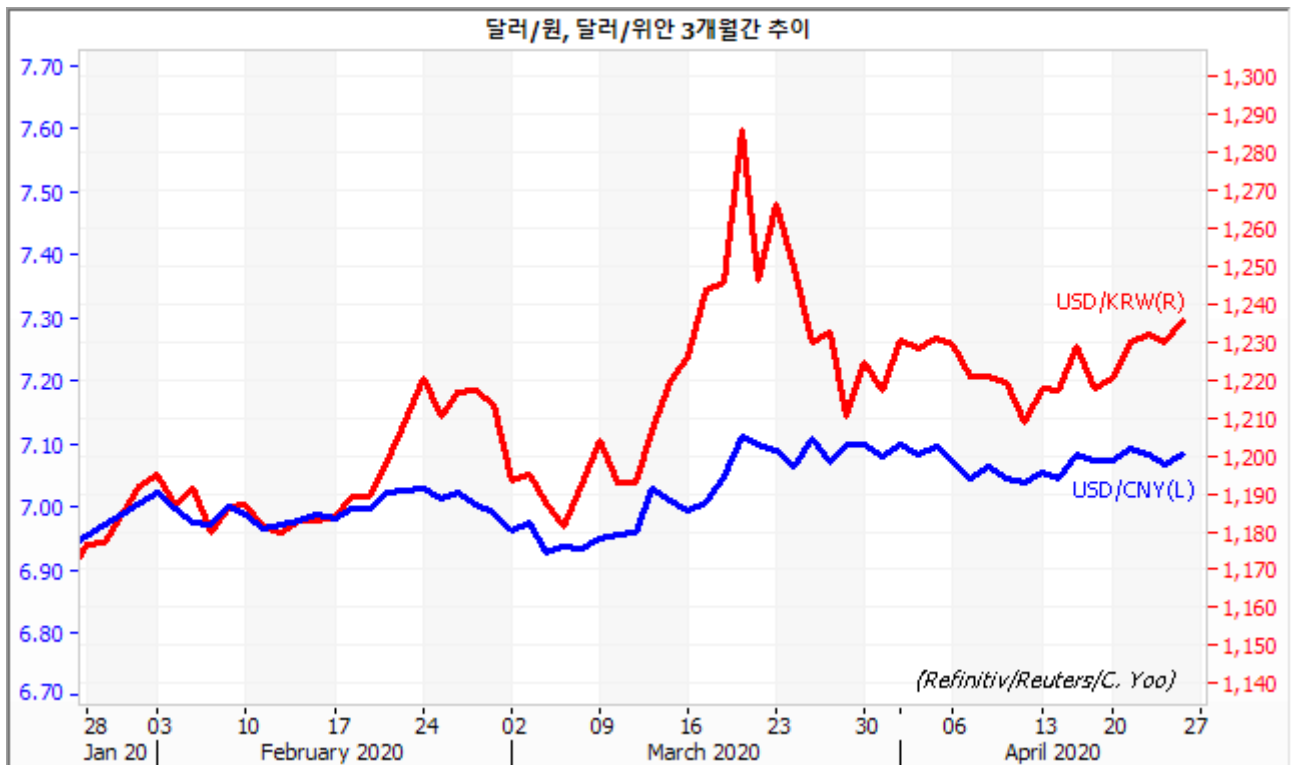
한은 관계자는 "지금 시장에는 가격 불문하고 달러를 조달하려는 수요보다는 저렴하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수요들이 존재한다"며 "일단 현재 상황이 긴급한지, 연준 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왑 형식의 자금 공급은 연준과의 추가 협상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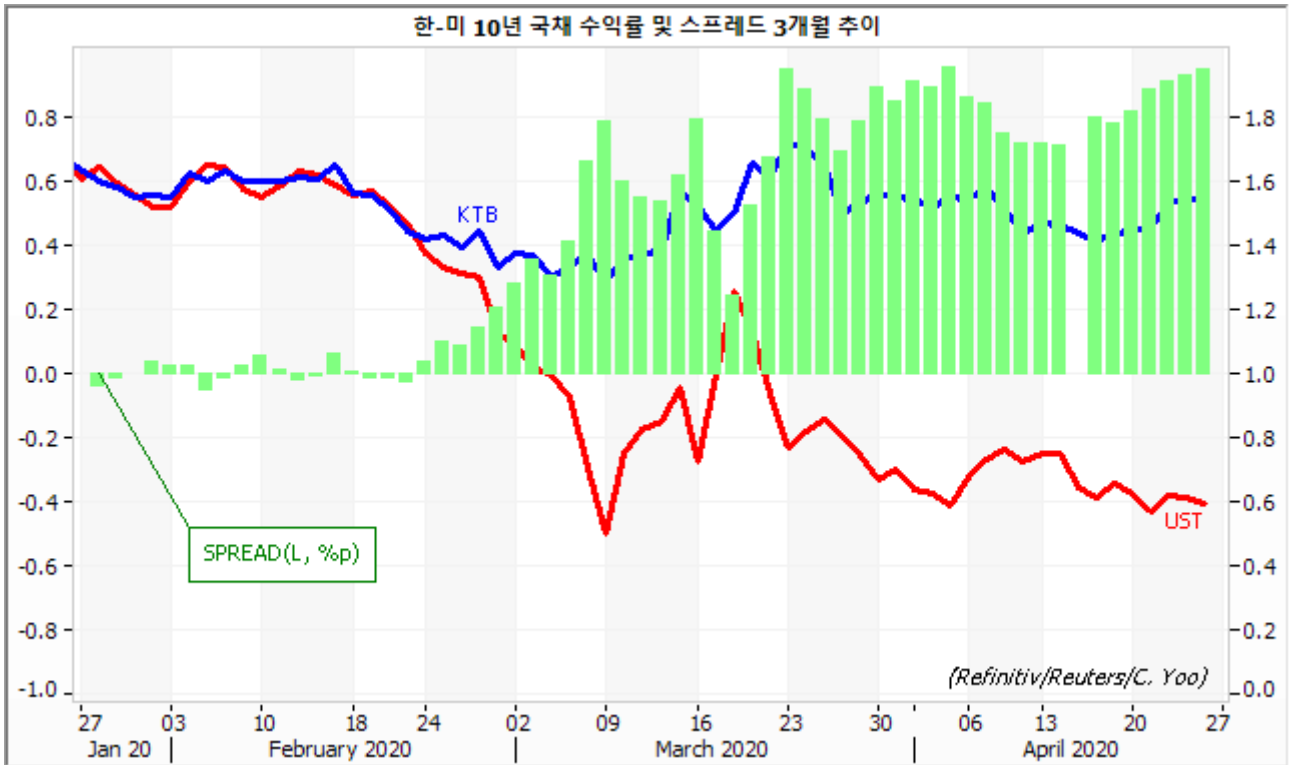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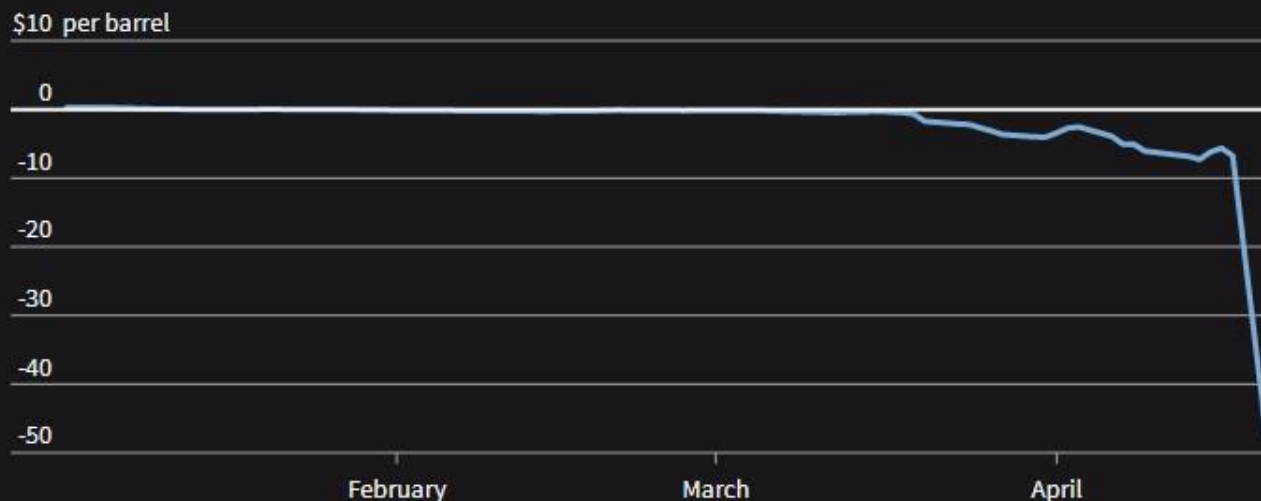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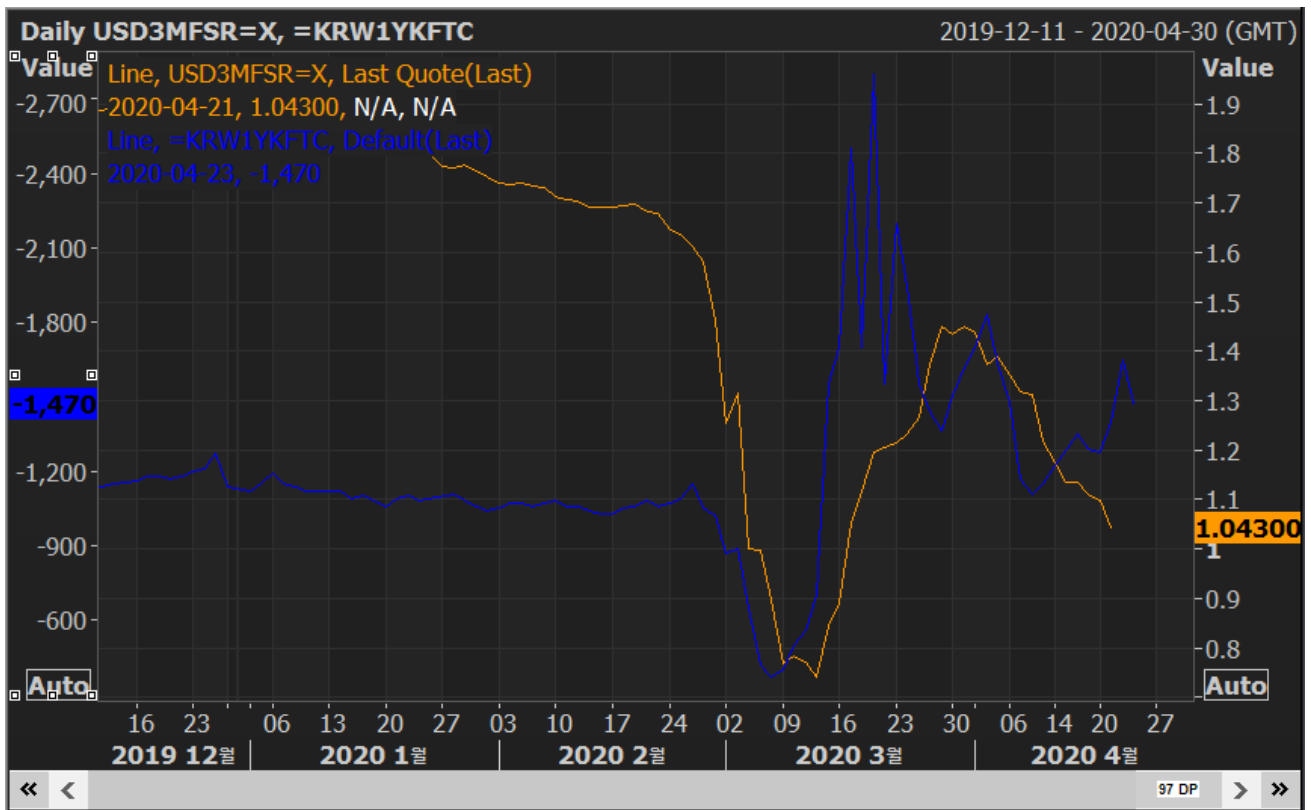
U.S. oil futures contracts show gigantic gap

The spread between the current U.S. crude May futures contract and the June contract has widened to more than \$45 a barrel, widest in the contract's history.



Source: Refinitiv Eikon data
Stephanie Kelly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